

■ 구멍 뚫린 특기자 전형

각종 경진대회 난립 위·모작 구별 불가

대입 특기자 부정입학 주선 사건은 현행 수시모집 제도의 허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대입 특자치형 지원자를 부여하는 각종 경진대회가 난립하고 있으나 선발 및 심사 과정이 허술하고 불투명해 악용될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지적되는 문제는 심사 과정이 허술하다는 점. 미리 제출한 작품 설명서를 읽어 본 뒤 심사 당일 출품자를 2~3분간 면접하는 것으로 심사가 끝나기 때문에 위작(僞作)·모작(模作)·대리출품 등 부정을 가려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학교별 대회 없이 특정 학생이 교사와 함께 곧바로 출품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점도 선발 과정이 불투명한 이유 중 하나다.

대학들의 특기자 심사 과정이 엄격하지 않은 점도 도마에 올랐다. 이번에 적발된 학생들이 지원했던 연세대의 경우 ▲수상경력 60% ▲추천서와 자기소개서 15% ▲면접 25%로 특기자를 선발하지만, 특기적성을 평가하거나 별도로 검증하기 위한 별도 절차는

광주·전남 매년 1차례씩 대회 열려

없었으며 이는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다. 정시모집에 지원하는 경우에도 교과 외 활동 등이 실린 학생부 기록이 종합적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대회 입상 경력은 대입 평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광주·전남의 경우 교육청 주관으로 매년 1차례씩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가 열리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매년 5월 동부·서부교육청 예선을 거쳐 초등학교·중학교에서 90개 작품이 출품되며 고등부는 예선 없이 학교장 추천으로 8개 작품이 출품된다. 이 대회에서 입상하는 고교생은 수시진학시 대학에 따라 가산점을 얻을 수 있다. 단 중학생은 광주 과학고 입학시 가산점이 없다.

매년 4월 열리는 전남도교육청의 경진대회에는 150여 명이 참가하며 입상 고교생은 수시입학시 가산점을 반영 받을 수 있다.

한 입시 전문가는 "수능시험이 현행 점수제에서 등급제로 전환돼 변별력이 더욱 약화되는 2008학년도부터는 정시와 수시를 가릴 것 없이 경진대회 과열 현상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막으려면 수학·과학 올림피아드 등 공신력 높은 소수 대회만 평가에 반영하고 대신 수능 최저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급선부"라고 말했다.

/최재홍기자 lion@kwangju.co.kr

“가채점은 냉정히... 맞춤 전략 짜라”

■ ‘수능 이후’ 효과적인 대입 준비

입시 설명회 등 정보·조언 구하고 상세요강 파악 입시노트 작성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6일 실시된다. 수험생들은 수능 이후 자신에 맞는 대학 지원전략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시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이번 수능이 현 입시체제에서 실시하는 마지막 시험인 만큼 그 어느 해보다 눈치작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수능 이후 지원전략’을 중심으로 효과적인 전략 수립법을 소개한다.

◇가채점으로 자신의 점수를 확인하라 = 수험생은 수능 직후 반드시 학원이나 교육업체의 채점 서비스를 이용해 자신의 점수를 확인해야 한다. 자신의 가채점 점수를 알면 점수에 맞는 원점수별 지원 가능한 대학을 알아 볼 수 있다.

수능 당일 가채점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사이트는 비타에듀(www.vitaedu.com)·유웨이 에듀(www.uwayedu.com)·마이맥스터디(www.mimacstudy.com)·이투스(www.etoos.com) 등이다. 이들 사이트는 또 대신 산출·모의지원 서비스·지원전략 등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한다.

학원이나 교육업체 등에서 주최하는 입시설명회를 통해 정보와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다. 광주 대성학원은 오는 22일 오후 3시 광주시 동구 서석동 KT광주정보통신센터 3층에서 입시설명회를 갖는다. 비타에듀(www.vitaedu.com)는 20일 2007학년도 수능 분석 및 정시지원 전략을 주제로 한 온라인 입시설명회를

전국에 중계한다.

◇대학에서 발표한 모집요강을 숙지하라 = 어떤 입시전문가라 해도 모든 대학의 입시요강을 완벽하게 알 수는 없다. 최고의 입시전문가는 바로 수험생 자신이 돼야 한다.

정시 지원전략을 짜기 전에 자기 점수에 맞춰 지원 가능한 대학을 알아보고 그 대학의 전형형을 100%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능 성적표가 나오기 전까지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수능 결과

를

분석한 뒤 대학별 맞춤지원 전략을 세우도록 한다.

◇자신의 점수를 토대로 입시전략 노트를 만들어라 = 모집 군별로 3~4개 대학을 최종 지원 후보로 정하더라도 모두 9~12개 대학이 된다. 여기에 각 대학의 상세 전형 방법을 파악하고 자신의 점수와 비교해 유·불리까지 따지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목표 대학의 전형 방법과 일정, 전년

도 경쟁률 및 지원 가능 점수, 본인의 강·약점 비교, 지원 시 유의사항 등의 핵심적인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입시전략 노트’를 만들어 활용하는 게 좋다. 적어도 원서접수 일주일 전까지는 ‘입시전략 노트’를 만들고, 남은 기간 동안 신중하게 비교 분석하면서 전략 담당 교사나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선택을 하도록 한다.

목표 대학의 전형 방법과 일정, 전년

도 경쟁률 및 지원 가능 점수, 본인의 강·약점 비교, 지원 시 유의사항 등의 핵심적인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입시전략 노트’를 만들어 활용하는 게 좋다. 적어도 원서접수 일주일 전까지는 ‘입시전략 노트’를 만들고, 남은 기간 동안 신중하게 비교 분석하면서 전략 담당 교사나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선택을 하도록 한다.

◇자신의 점수를 토대로 입시전략 노트를 만들어라 = 모집 군별로 3~4개 대학을 최종 지원 후보로 정하더라도 모두 9~12개 대학이 된다. 여기에 각 대학의 상세 전형 방법을 파악하고 자신의 점수와 비교해 유·불리까지 따지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목표 대학의 전형 방법과 일정, 전년

도 경쟁률 및 지원 가능 점수, 본인의 강·약점 비교, 지원 시 유의사항 등의 핵심적인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입시전략 노트’를 만들어 활용하는 게 좋다. 적어도 원서접수 일주일 전까지는 ‘입시전략 노트’를 만들고, 남은 기간 동안 신중하게 비교 분석하면서 전략 담당 교사나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선택을 하도록 한다.

◇자신의 점수를 토대로 입시전략 노트를 만들어라 = 모집 군별로 3~4개 대학을 최종 지원 후보로 정하더라도 모두 9~12개 대학이 된다. 여기에 각 대학의 상세 전형 방법을 파악하고 자신의 점수와 비교해 유·불리까지 따지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목표 대학의 전형 방법과 일정, 전년



수능 후 교도관 상대 강도짓

목표경찰은 15일 교도소 복역 중 알고 지내던 교도관을 협박, 부인을 불러내 현금 카드 등을 빼앗은 정모(37)씨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목표=이성희기자 lsh@kwangju.co.kr

가정집서 보복 등 무면허 시술

○광주 서부경찰은 15일 가정집에서 무면허로 불법 성형시술을 한 김모(여·36)씨에 대해 보건범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월18일 광주시 동구 모 빌라 최모(여·43)씨의 집에서 150만원을 받고 최씨의 얼굴에 '보틀리늄 독신'(일명 보톡스)을 주사하는 등 6명에게 '보틀리늄 독신'과 '올라겐'을 주사하고 2천만원을 챙긴 혐의.

○김씨는 사우나·찜질방 등에서 알게 된 여성들을 상대로 얼굴(150만원)·가슴(200만원)·배(100만원) 등의 주름 제거를 해왔는데, 시술 후 부작용으로 큰 고통을 겪은 여성들의 신고로 달미.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시험장 폭파” 협박

수능 고사장 73곳 폭발물 설치 점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5일, 광주 북부경찰서 직원들이 고사장인 광주 고려고등학교에서 폭발물이 설치돼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경찰은 전날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 '전국 수능 고사장 4곳에 원격 폭탄을 설치했다'는 이메일이 접수돼 광주·전남 지역 고사장 73곳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경진대회 부정 입상해 대학 특기자 합격

교육청 연구관 등 구속...경찰, 광주·전남 등 전국으로 수사 확대

현직 교육청 연구관이 역대 돈을 받고 서울 강남지역 고교생들을 경진대회에 부정입상시킨 뒤 수상 경력을 근거로 연세대에 특자치전형으로 입학시킨 사실이 적발됐다.

경찰청은 현재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광주·전남 등 전국 각지에서 개최된 경진대회도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5일 대학생들

의 부정입학을 주선한 김모(51) 서울교육청 학교운영 지원과 연구관을 특가법 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고 김 연구관을 매수한 학부모 3명과 입상 당시 지도 교사 명의를 빌려 준 서울 강남지역 고교 교사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김씨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호텔 숙박비·일본 여행 경비 등 788만원을 받은 금품을 받은 유인중

(72) 전 서울시 교육감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에서 15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했던 김씨는 경진대회에 입상하면 명문대 특자치전형에 합격할 수 있다고 피어 2000년부터 학부모 3명으로부터 1억5천800만원을 받아 이들의 자녀를 경진대회에 부정입상시킨 혐의다.

/연합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

www.kukjepharm.co.kr

사람이 자연을 사랑한다지만...
오히려 자연은 존재하는 것 만으로도
사람에게 무관한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정성스레 쌓아올린 돌탑 앞에 작은 소원을 말해봅니다.
그 소원이 꼭 이루어지진 않지만
소원을 비는 정성만으로도 사랑을 주는것.
그것이 국제약품이 추구하는 사랑입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 한약 일반의약품

- 키엘레 천연비**

키엘레 천연비

키엘레 천연비
- 신도톨 환골단연**

신도톨 환골단연

신도톨 환골단연
- 진어탕 천연비**

진어탕 천연비

진어탕 천연비

광고심의회 : 878-0100

국제약품의 기쁨이고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건강, 행복, 웃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